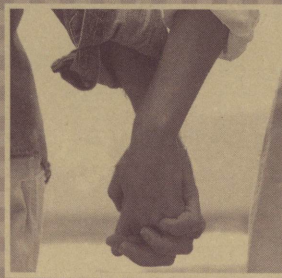


성·폭력
생·존자
특·인
의
가
주
특
별
한
유
기

2003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 초대합니다
- 왜 우리는 소리내어 말하려 하는가
- 행사개요
- 궁금하고 걱정되는 점들
- 참여자들의 권리와 청중이 지켜야할 규칙
- 생존자가 보내는 편지
- 참가안내

※ 일시와 장소는 참가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높은 가을 하늘에 청명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생존자들과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3년 간 상담소를 찾은 45,000여 생존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말문을 여시고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이후 누구보다 강한 치유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저희들은 생존자의 '말하기'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을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초 대 합 니 다

생존자의 치유와 지지, 소통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합니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말하고 듣는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생존자에게 말하는 힘을 살리게 하고, 지지자에게는 잘 듣고 공감하는 법을 느끼게 하는 행사입니다.

생존자들이 말하는 또 하나 특별한 의미는

생존자들이 이 행사를 통해 다른 생존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하는' 이 행사를 통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되살리고, 진심어린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는 자리! 생존자의 권리를 찾는 소중한 시작을 우리들이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경 드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스피크 아웃이란 ?

「스피크 아웃」은 성폭력의 피해를 말하고 치유하려는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생존자들의 스피크 아웃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스피크 아웃 행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통해 생존자들의 스피크 아웃을 할 수 있는 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